

터키문화관광부, 터키인들이 사랑하는 봄꽃 소개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5.11 09:29 | 댓글 0

- 터키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 4월의 튤립과 5월의 장미

- 터키인들의 이색적인 꽃놀이...바다와 함께 튤립 정원 감상하고 서로의 몸에 장미 꽃잎 뿌려 줬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터키문화관광부(Turkish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가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 터키의 대표 봄꽃과 명소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등이 봄의 전령사로 통한다면, 터키의 봄꽃은 튤립과 장미다. 봄이 되면 이스탄불(Istanbul) 도시 구석구석 탐스러운 튤립 꽃송이가 피어난다. 튤립의 나라로 네덜란드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튤립은 터키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꽃이자 터키의 국화이다. 또 다른 터키의 대표 봄꽃은 장미이다. 터키의 이스파르타(Isparta) 지역은 봄이 되면 도시 전체가 아찔한 장미 향기로 뒤덮인다. 세계 최대 장미 오일의 생산지답게 만개한 장미 꽃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터키문화관광부는 터키 사람들이 사랑하는 국민 봄꽃과 함께하는 터키의 봄을 소개한다.



에미그란 정원의 튤립 (c/shutterstock)